

뉴스홈 | 최신기사

[우크라 침공] 러, 동·남·북 3면으로 공격...지상군 진입(종합2보)

송고시간 | 2022-02-24 16:55



박의래 기자

기자 페이지

개전 선언 동시에 우크라 주요 도시 미사일 피격..."8명 이상 사망"
러 "우크라 군 시설 정밀타격...민간인 위협은 없어" 주장



러시아 침공 개시 후 불길 치솟는 우크라 남부 군사시설

(마리우폴 로이터=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한 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공항 인근 군사시설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2.2.24 leekm@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박의래 기자 = 러시아가 24일(현지시간)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사작전 승인과 함께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북부 3면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새벽 5시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러시아군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기반시설과 국경수비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며 많은 도시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언론은 키예프의 군 사령부 중심지와 북동부 하리코프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에서도 폭격이 발생했으며 키예프와 키예프 인근 보리스필 국제공항을 포함해 크라마토르스크, 오데사, 하리코프, 베르단스크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하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미사일 잔해 조사하는 우크라이나 경찰

(키예프 로이터=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시내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을 승인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 2022.2.24 alo95@yna.co.kr

키예프와 리비우에선 공습경보도 발령돼 시민들이 지하철역으로 대피했다. 서부 도시 리비우엔 미국 대사관 등 여러 외교 공관이 대피한 곳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곳곳의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방공망과 공군기지, 항공기 등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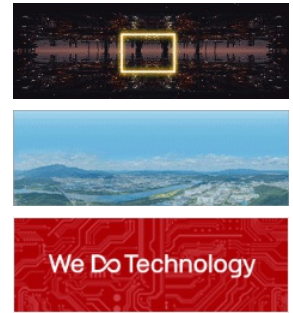
이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도시의 민간인이 있는 지역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이나 포격을 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위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8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그래픽]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

(서울=연합뉴스) 반종민 기자 bjbji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ey.kr/LeYN1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러, 동남북 3면으로 공격...지상군 진입(종합2보)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년 2월 24일 하르키우 인근 추기예프 군공항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러시아 지상군도 여러 방향으로 우크라이나에 진입하고 있다.

AFP통신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개전을 선언한 지 몇 시간 만에 러시아 지상군이 여러 방향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 왔다고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를 인용해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탱크 등 각종 군사 장비가 우크라이나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북부에서는 벨라루스 국경을 따라 러시아군의 공격이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을 따라 벨라루스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군의 포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경수비대는 러시아군이 포병과 중장비 무기, 소형 무기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국경부대와 순찰대, 검문소를 공격하고 있으며 국경수비대도 반격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러, 동남북 3면으로 공격...지상군 진입(종합2보)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년 2월 24일 하르키우 인근 추기예프의 군용 공항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한 남자가 길을 걷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리며 "전면적인 침공"을 경고하고 있다.

또 북동부 체르니히프에서도 러시아군의 대오가 목격됐다고 국경수비대가 발표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군은 10일부터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벨라루스 남서부 브레스트와 도마노보 등에서 연합 훈련을 해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7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38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0
-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0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

55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9

뭐하고 놀까? #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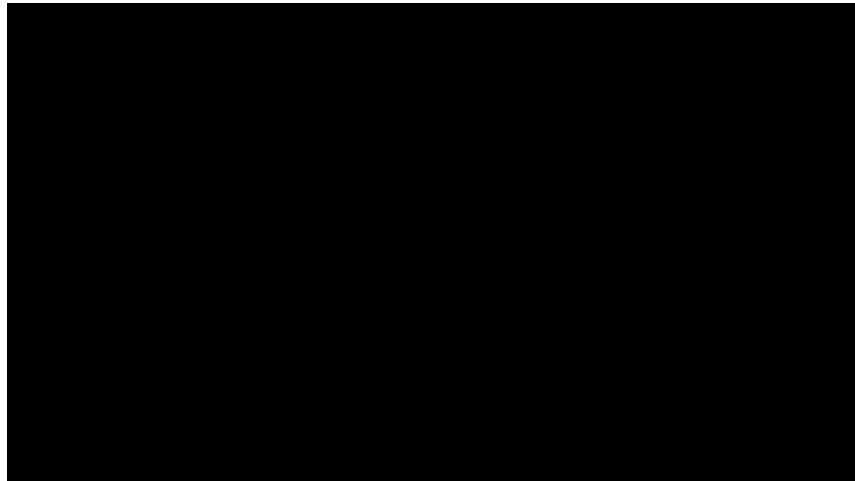
왔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우크라이나 반군이 우크라이나 관리 아래 있던 루간스크주 스차스티예 등 2곳을 장악했다고 보도했다.

친러 반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간스크·도네츠크주) 지역을 2014년부터 절반 정도 장악하고 있다.

laecorp@yna.co.kr, hwangch@yna.co.kr



유튜브로 보기

🔗 관련기사

[우크라 침공] 우크라 외무장관 "푸틴, 전면전 개시"

[우크라 침공] 바이든 "러, 부당한 공격 책임 묻겠다...동맹과 단호히 대응"(종합)

[영상] 전쟁 시작한 푸틴..."수도 키예프에도 연쇄 폭발음"

[2보] 푸틴, 우크라이나 동부서 특별 군사작전 선포

[우크라 침공] 국제사회 규탄...유럽·나토 "즉각 대응할 것"(종합)

[우크라 침공] 우크라 국경수비대 "벨라루스·크림반도 넘어서도 공격"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24 16:55 송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푸틴 #미사일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 채 두 눈만 밀뚝밀뚝...누가 학대했나
결국 우크라이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넛닷컴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관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지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기세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을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상기홍 [편집인] 조재희
Yonhapnews